

사설

제17대 총장 선임... 시작은 '소통'이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전망된다.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선거에 참여하는 인구도 40퍼센트에 육박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학교도 그 흐름을 같이하는 듯하다. 지난 8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총장 선임 과정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새 총장과 함께 출발하는 해다.

제17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진상 교수는 내달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 교수는 후보자 시절 '전략적 경영', '교육과 연구를 통한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 르네상스를 위하여'를 골자로 한 비전과 주요 정책을 법인에 어필했다. 임기 시작까지 한 달 가량 남은 지금, 김 교수는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우리신문은 전화와 메일로 구성원에게 새 총장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응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소통'이었다. 답변

대부분에서 총장이 구성원을 이해하고 구성원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실현하는 길은 소통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형식적인 자리여도 소통하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대화, 격식 없는 수시 만남을 말하기도 했다.

소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총장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주된 채널로 삼아 학교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캠퍼스 곳곳, 노후한 건물과 시설에서 교육과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 시스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 캠퍼스의 괴리를 줄이고 학생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하라는 요구 역시 잇따랐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어서다. 한 응답자가 직원 임금상승률을 물가상승률 혹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에 비례하게 보장하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응답자는 총장이 목표하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뒷받침해야 할 재정 상황을 우려했다.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돼 수입이 한정적이며 4년이라는 임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과 자주 만나 진행하는 하향 소통, 의견 수렴 등 상호 소통은 구성원을 이해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소통은 선임 과정에서 생긴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구성원 직접 투표가 사라지고 참여가 축소되며 총장 선임제가 이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신문

기사 댓글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법인 산하에 있는 학교라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문제 없다는 의견과 학원의 민주화라는 장학정신을 거스르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구성원이 선임 과정에 완벽하게 수렴하지 못한 것은 그 과정에 따라 임명된 총장을 신임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구성원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전하는 것이 신뢰를 획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은 올해를 '민주주의의 슈퍼볼'이라 칭했다.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에 비유했다. 총장, 국제캠 학무부총장, 총학생회가 새롭게 등장한 2024학년도 우리학교에서 '슈퍼볼'은 이제 끝났다. 남은 것은 '민주주의'다. 구성원과 소통해야 할 총장의 몫이다.

세시봉

불편할 용기

서나는 기자
merio@khu.ac.kr



함박눈을 자주 볼 수 있는 요즘이지만 SNS에서는 전국 곳곳의 봄꽃 목격담이 이어졌다. 부산에는 벚꽃이, 창원에는 개나리가 폈으며 그보다 북쪽인 서울에도 벚꽃이 폈다. 12월에도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며 때아닌 봄꽃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해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 인제군에서는 이상고온으로 빙어 축제가 취소됐다. 겨울마다 우리를 반겨주던 전국의 스키장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기에 문을 열었다.

기후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한겨울에 봄꽃이 폈다는 기사를 마주한 순간에만 그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 편리함에 젖어 든다. 항상 꽃혀있는 전기 플러그, 일상이 돼버린 일회용품, 분기마다 소비되는 새로운 의류들을 보면 가까워진 기후 위기가 여전히 '나'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을 표방하며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분기마다 새로운 상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과소비를 조장한다. 팬 사인회 응모권, 무작위로 들어있는 포토 카드 등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백 만장씩 소비되는 유명 가수의 실물 앨범 구성품은 대부분 코팅지로 이뤄져 재활용이 불가하다. 산림을 파괴하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골프장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뜨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괴되는 생태계에는 우리 인류도 분명히 속해 있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는 생존의 문제다. 이를 인지하고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각종 질병,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 재배가 어려워져 물가도 치솟는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건강, 식생활, 경제생활에 치명적이다. 미래의 생존은 일상 속 아주 작은 불편함에 달려있다. 알고만 있었던 것을 하나 하나 실천해 보자. 미래를 위해 기꺼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은 어떨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허울뿐인 분리수거

나 하나부터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시험 기간 도서관에서는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일회용 컵 쓰레기가 쓰레기통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길거리에는 일회용 컵 쓰레기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몇몇 학교 구성원의 미성숙한 행동은 또 다른 학교 구성원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내용물로 인해 오염된 플라스틱 컵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수거되는 과정에서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또한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는 미술대학 옆 분리수거장에서 다시 사람의 손을 일일이 거쳐 버려진다. 더운 여름에는 지독한 쓰레기 냄새와 싸워가고 추운 겨울에는 얼어붙은 손을 간신히 녹인 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분류한다.

적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는 입을 모아 고충을 털어놓는다.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치워야 한다는 상식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은 당연한 상식을 거스르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자신이 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제가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며 정당화한다. 혹자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청소노동자가 할 일이다",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는 게 오히려 청소노동자의 일을 늘리는 행위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폐기물은 소각되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또 다른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도 규제하고 노력하지만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 하나부터"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만평 쓰레기의 늪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